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인적자원 개발



김인세
부산대 총장
051-512-0311

우리 나라는 산업화 과정에서 '한강의 기적'이라 표현되는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보화와 국제화의 시대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지금의 국제경쟁상황은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기류에 휩싸여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이념이 아니라 국가 이익에 따라 뽐치기도 하고 좁이 지기도 하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을 중시하며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산·학·관·연이 유기적 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가 '신용주의'를 주창하며 '지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기술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존의 '모방, 추격형 R&D 정

책'에서 '창조, 선도형 R&D 정책(Front-Runner)'으로 전환하여 미래 유망산업의 창출을 앞당기기 위하여 전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15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및 조선, 생산시스템, 화학공정 등 7개 주력산업과 바이오, 차세대로봇, 디지털컨버전스, 차세대 의료기기 등 4개 미래유망기술, 나노기반, 생산기반, 정정기반, 지식서비스 기반 등 4개 기반기술을 제시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이 국민소득 4만달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은 '기술두뇌'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면 장미빛 계획에 그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무엇보다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다자주의 경



세ହି력이 증진되고 통상마찰과 지역경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이 거대시장으로 부상하고 세계적인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상황도 심각하다. 한마디로 글로벌 경쟁과 통상마찰 한층 더 거세지고 있다.

이제 예전의 양지 성장전략관으로는 지식·기술·정보혁명시대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혁신수도형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산업의 근간인 사농차, 조선, 전자, 섬유 등 주력 기간산업에 IT, BT, NT 등 신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지난 시선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에서 원천기술 확보에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며, 그 결과 보연타에 지출되는 부담이 상당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차세대 성장동력

신업을 새로운 주력신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정전방향이다. 기술주체인 인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부도 인재대국을 지향하며 세계적 과학인지 양상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육성책들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가시화 될 수 없다. 대학, 지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의 능동적인 참여와 혁신이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며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차세대 산업이 본격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고급 연구인력 확보, 효율적인 산·학·연 협동체제 구축,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 등 구체적 실천계획 등이 어우러져야 한다.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인재개발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범국가적 화두로 삼았으면 한다.

|기술표준 2008. 5

